

第107回(定例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本會議會議錄

第2號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2000年12月12日(火) 10時24分

議事日程(第2次本會議)

- 1. 鐘路區廳長에 대한 區政質問의 件

附議된案件

- 1. 鐘路區廳長에 대한 區政質問의 件 1面

(10時24分 開議)

○議長 金以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鐘路區廳長에 대한 區正質問의 件

○議長 金以煥 의사일정 제1항 종로구청장에 대한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의규칙 제6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종로구청장에 대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회의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13명으로 질문 접수 순서에 따라 12월 12일 오늘은 金福同議員 외 6인의 의원이 질문하고 12월 13일 내일은 洪起瑞議員 외 5인의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시간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분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제한규정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문 후 곧 이어서 일괄 답변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일괄 질문 후 곧이어 일괄답변 방식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접수된 순서에 따라 金福同議員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福同議員 종로5·6가동 출신 金福同議員입니다. 오로지 종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기 좋고 아름다운 종로건설에 고군분투 하시는 존경하옵는 金以煥 議長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세계 속의 종로를 만들기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鄭興鎭 區廳長님과 1,400여 공무원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천년의 IMF 경제 체제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종로주민 여러분께서 모아주신 단합된 힘과 열정이 서민들의 가계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나아가 종로를 괄목성장할 만큼 성장 발전시켜 주신 데 대하여 종로구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종로주민 여러분께 마음속으로부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벌써 10년이 흘렀음에도 아직까지 불합리하고 모순된 정책과 시책으로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본 의원이 심히 안타

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화1번지라고 일컫는 종로에 쓰레기 수거와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구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종로구 19개 동 중 10동의 쓰레기를 4개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수거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어 거리가 온통 쓰레기 천지로 변화하다시피 하고 인터넷과 전화 등을 통한 주민의 원성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식구조 개선이 미흡한 것도 문제이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 거리의 미관을 해치는 대형쓰레기 수거와 관련된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은 대행업체에 사전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발급받아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행업체에서 이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수거비용이 처리비용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이며 이로 인한 웃돈을 주기 전에는 처리를 기피하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신고 후 며칠씩 기다리다가 지쳐 인적이 뜸한 골목길이나 도로변에 내다버리는 비양심적인 행위를 저지르도록 관청에서는 원인제공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종로5·6가동 관내에만도 이렇게 버려지는 폐냉장고가 방치되어 있고 주택가 주변에는 무단투기된 쓰레기가 쌓여 있어도 구청이나 대행업체에서는 모두 처리를 서로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수거비용을 현실화하여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는 돈을 조금 더 부담을 하더라도 폐기물 처리를 원활히 해야만 쾌적하고 깨끗한 종로거리를 조성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가지는 건축폐자재 수거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건축물폐자재는 등록된 폐기물처리업자가 수거하도록 하고 배출자 처리원칙에 의거하여 소규모 집수리를 하고 발생한 폐자재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쓰레기 처리분량이 한 차가 되지 않을 경우에도 대행업자의 횡포로 차량 1대분의 처리비용인 20만원에서 30만원을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어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투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소규모 건축폐자재 처리신고를 받아 행정차량으로 수거하여 일정 장소에 모아두었다가 재활용할 자재를 재활용하도록 하고 폐기물은 일정한 양이 되면 처리업자에게 의뢰하여 일괄 수거하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무단투기된 쓰레기 투기문제입니다. 무단투기된 쓰레기는 대행업자나 구청 동사무소에서 수거를 즉시 하지 않아 악취와 주변환경이 불결하여 주민의 원성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규격봉투가 아닌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은 종량제를 실시하는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도 있으나 무단투기 감시인력을 제도적으로 충원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근본적으로 무단투기를 방지하는 배출자수거원칙에 의거하여 수거하지 못한 쓰레기 다시 말씀드려 배출자를 찾지 못한 쓰레기는 우선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생각해서라도 행정관청에서 직접 처리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동사무소는 취로인부나 공공근로 인원을 활용하여 수거하여왔으나 내년부터는 취로사업과 공공근로사업 모두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이고 설상가상으로 동기능 전환이 시행되면 동사무소 직원도 감축하기에 이르러 쓰레기를 수거할 인력이 없어질 것이며 방치된 쓰레기로 인한 민원은 계속 증가할 것은 기정사실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무엇보다도 2, 3명 정도 환경미화원을 배치하여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로5·6가동 지역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염색공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종로5·6가동 지역에 동대문 종합시장이나 평화시장에 납품하는 원단 및 부자재의 가공을 위한 염색공장이 50여 개소가 있으며 이 숫자는 날로 증가 일로에 있습니다.

이들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소음으로 말미암아 주거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쾌적해야 할 주거환경이 이미 낙후될 대로 낙후된 지 오래입니다. 염색공장은 주민들의 기피 시설로 주거지역에서는 설치를 제한해왔으며 몇 년 전에는 도심의 염색공장들을 외곽지역으로 이전시킨 적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 최근에 오히려 소규모 주택들은 공장으로 용도변경한 후 무제한으로 허가해줘 사실상 염색공장을 양성화한 꼴이 되었는데 용도변경 후 허가한 염색공장의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구정질문에서도 질문한 바 있으나 개선된 것은 없고 오히려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염색공장에서 폐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배출하는 염색공장 때문에 악취가 진동하고 소음으로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는 등 고통을 받고 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젖줄인 한강의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청에서 이들 업소를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염색공장의 신설을 제한할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는 대형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대형건축물의 위법사항을 점검한 실적은 상설점검 연 4회 중 대형건축물 연 1회 단속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264건 중 적발건수는 14건으로 모두 시정지시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용도변경이 신고제로 바뀐 뒤 무단용도 변경 등 위법건축물이 산재해 있음에도 강력한 조치 즉 재산압류나 고발건수는 한 건도 없고 이행강제금만 겨우 1억 7,000만원 부과한 데 그쳤습니다. 무단용도 변경이나 증개축은 건축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보다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해야만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과 같은 대형사고가 없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이나 대형건축물 관리 주체측 소유주가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관리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좀더 강력하게 관에서 직접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유지 재산에 대한 보상권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종로6가 김지원 씨 등 종로5·6가동만 7건의 2평에서 11평까지 도시계획에 편입되어 토지가 수용되어 도로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에서는 20년이 지나도록 보상을 미루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술 더 떠 세무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20년 가까이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이 도로를 조금만 점용하면 가로정비요원을 풀어 정비와 단속을 하여도 도로점용료다 부당이득금이다 해서 꼬박꼬박 징수하고 안되면 강제집행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주민의 재산이 도로에 편입돼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이 만들어놓고 세금만 부과하는 처사는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유재산을 국가가 억지로 착취한 행위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데 구청장님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미력이나마 구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주민 복리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議長 金以煥 金福同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安載弘議員!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載弘議員 安載弘議員입니다. 이제 2000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초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모든 계획들이 연내에 뜻대로 이루어지고 잘 마무리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로는 자원봉사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종로구의회는 주민문화복지센터설치에 관한 조례를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 동기능이 주민의 곁에서 밀접하게 주민의 민원을 처리하는 그러한 기능을 혁신적으로 개혁

해서 주요 기능 중에 간단한 민원부문만 남겨놓고 모든 기능을 지방자치단체 자치구로 이관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를 처리하게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업무는 주민의 문화, 복지 또는 여가생활 중심으로 동사무소의 기능을 전환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능의 전환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현재 입장에서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권위주의 시대에 국가나 또는 관이 주도하던 행정체제로부터 자원봉사를 통한 주민 참여형 지방자치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본 의원이 불 때 종로구의 자원봉사 시스템을 좀더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지원할 수 있는 자원봉사과의 신설이나 지원조례의 제정은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자원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개편해서 새로운 세기, 새로운 시민운동으로 이렇게 전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서북부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체육 시설 신설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하문터널 밖의 종로구 구기동, 평창동, 신영동, 부암동, 홍지동은 최근 들어 계속 인구가 유입되면서 약 3만 4,0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인구는 종로구 인구의 약 18%를 차지하고 아울러 이 지역은 종로구 전체 면적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지역에 사는 3만 4,000명에 대한 배려가 사회적인 배려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려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문화체육시설이나 복지시설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이 있다면 오직 신영어린이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서북부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나 체육이나 기타 복합건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에 2000년 11월 현재 도시가스보급률은 약 79%입니다. 이 중

에서 평창동과 구기동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65.4%고 종로구의 평균치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종로구 평창동과 구기동은 지역의 특수성이나 택지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단독주택 중심의 독립적인 주거형태, 옛부터 이루어진 주택지, 하천으로 복개된 콘크리트 구조물, 교량 또는 가스설비의 고압형태로 말미암아 도시가스의 공급률이 종로구 전체의 평균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형적인 특수성은 평창동이나 구기동 지역 주민의 도시가스 이용의 권리를 상당기간 유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스사용 신청시 부담이 되는 높은 공사비용과 뚜렷한 이유 없이 지체되는 공사의 기간 이와 같은 문제로 발생하는 주민의 불신은 상당히 높습니다. 구기동 일부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공사의 지체사유와 대책,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인 400번지, 500번지, 300번지 일대의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는 2001년도 도시가스 공급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구기동 139번지 일대는 국립공원의 진입로입니다. 공휴일과 주말에는 수 없이 많은 시민들이 그곳을 이용해서 아름다운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지 입구에 위치한 토지들입니다. 그 이웃에는 건덕빌라나 현대빌라, 동성빌라, 풍림빌라 등 여러 빌라들과 단독주택들이 아름다운 북한산을 배경으로 서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주택지답게 쓰레기 처리장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종로구의 쓰레기 처리장과 같이 깨끗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로를 따라서 잔뜩 널려있는 각종 수거물과 재활용을 위한 작업장 또한 재활용품을 분류하기 위해서 벌여놓은 각종 용품 특히 토목과의 각종 폐기물, 깨진 보도블록 널브러진 각종 수거물들이 마음대로 널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2000년의 종로구청의 행정목표는 아름다운 종로입니다. 아름다운 종로를 만들기 위해서 종로의 일부 지역은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남아있어야 하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시유지 10필지를 종로구 청소행정과, 문화진흥

과, 토목과 그리고 정체 불명의 통신공사회사에서 나눠서 이미 점용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럴 수밖에 없는 종로구청의 고충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곳이 단지 창고라고 해서 먼지 나고 더럽고 냄새나는 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는 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잘 관리만 하신다면 오히려 깔끔하고 깨끗한 곳으로 만들면서 동시에 창고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기동 139번지의 깨끗한 관리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행정의 대책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金福同議員님께서 대행지역의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로구 청소행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청소행정에 소요되는 투입비용에 비해서 쓰레기 처리의 효율성이 상당히 낮다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관련자료에 의하면 '99년도의 청소행정에 투입된 재정지출은 141억 2,200만원이며 세입은 쓰레기봉투 발생수입 등으로 20억 4,600만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쓰레기 처리 행정과 관련된 자립률은 14.5%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은 수치로도 청소행정의 문제점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종로가 안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청소의 문제점을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소하천에 따른 교통의 장애라든가 환경미화원의 고령화로 인한 작업능률의 저하문제 부족한 중간집하장의 문제, 고지대 좁은 골목으로 인한 처리의 지체문제, 제대로 이행이 안되는 재활용품의 분리수거 등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방안이 대행체제의 도입이었고 청소업무에 민간기업의 효율성이 확대 적용되어 많은 예산의 절감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따라 종로구 전체 20%의 지역에서 쓰레기 발생량의 50%를 3개의 대행회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행체제의 확대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2001년에는 대행체제를 가로청소를 제외한 전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현재 평화실업, 대승기업, 신창기업 등 3개의 회사로 제한되어 있는 청소대행업체를 3개

의 회사 외에 다른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들이 작업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민의 불만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회사들이 적격심사에서 조건부 허가될 수 있도록 조건부 허가제를 도입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로는 '99년도와 2000년도 2년 연속 민원업무처리 주민만족도 평가분야에서 서울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럽고 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친절하고 신속히 업무를 처리해서 주민들에게 긍지를 심어주신 집행부의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종로구의 '99년도 진정민원 접수실태는 문서로 948건, 인터넷 240건, 전화로 74건, 기타 11건 등 총 1,27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91년 지방자치제도의 재실시 이후 주민들의 행정욕구 및 주민권리 보호 문제가 증대되면서 자치단체에서 적법하게 행한 행정처분까지도 사업주와 인근 주민간에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집단민원화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주와 인근 주민간에 갈등의 폭이 늘어나 행정기관 및 행정행위의 불신으로 이어지면서 집단이기주의 현상으로 또한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주와 인근 주민간의 대립된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거나 적법한 행정처분이 될지라도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그 이해당사자와 공개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중재함으로써 주민간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행정이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변호사, 건축사, 교수 등 전문가 집단과 의회의 의원님, 시민단체로 구성된 배심원제도를 도입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희자금 관리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로구 2001년의 세외수입 중 주차수입은 2000년 예산의 4억 3,400만원보다 5억 2,230만원이 증가한 9억 5,73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전년도 이자수입 예산은 22억 1,117만원이었으나 2001년의 이자수입 예산은 16억 6,351만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5억 4,766만원이 감

소 편성되었습니다. 왜 종로구에 이 중요한 이자를 관리하는 담당 책임자들은 2000년과 2001년도 이자수입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이것은 자금관리의 소홀함에서 오는 예측능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자치시대가 점차 자리잡아 가고 있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수요는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지방재정여건은 취약한 편입니다. 종로구 2001년도 재정자립도는 약 70%를 상회하고 있으나 지방세 수입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과 함께 재정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경영마인드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중은행의 치열한 경쟁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이 개발되고 있음으로 자치단체의 유휴자금을 관리함에 있어 자금 흐름의 예측능력을 확보하고 적절한 투자기관에 맞는 적절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분석능력과 빈틈없는 투자전략을 강구하여 투자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치단체의 세입세출의 현금 흐름을 보면 세출의 흐름은 연중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나 세입의 경우는 지방세의 납부마감시기에 편중되므로 자금흐름의 정확한 예측으로 현금보유율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투자상품 및 투자기관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체제의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언젠가 새로 집을 지어서 입주한 친구의 집에 집들이를 간 적이 있습니다. 오후 5시가 넘어서 어둑어둑해질 시점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아주 잘 지어진 집을 이곳 저곳 재미있게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새로 지은 집이니까 여러 가지가 잘 정돈되어 있었고 깔끔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가 흥미를 가진 것은 그가 건축을 한 사람에게서 받은 잘 보관된 그 집의 최종 설계도였습니다. 그 건축가가 친구에게 그 설계도면을 주면서 한 말은 앞으로 사시다 보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적인 하자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도면을

보면서 고쳐나가시라고 주더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설계도면을 잘 관리하면 건물을 관리하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종로구는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고 새로운 복지건물을 짓고 하수구를 설치하고 다리도 신설합니다. 분류 하수관로를 설치하고는 또 1,2년이 지난 뒤 그 하자를 보수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시공된 모든 구축물들을 백서로 발간해서 시공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수록하고 하자와 관련된 내용까지 기록하여 유지 관리한다면 부실한 공사도 사라지고 사업의 내용과 예산집행내용을 비교 분석할 수 있게 해서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도 확보될 수 있으며 시공사의 책임의식도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건설백서를 발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단체의 지역통합이미지인 CI의 개발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99년 12월 정기회시 청장님께 CI 즉 지역통합이미지의 제정요의를 질문드린 적이 있습니다. 종로의 역사와 문화를 고려해서 새로운 미래의 종로에 맞는 이미지통합 개정 CI를 개발해서 새로운 도구와 상징물을 만든다면 이 지역 주민들의 통합된 이미지를 구축하고 또한 주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으며 또한 그것을 종로구에 있는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99년에도 질문드렸고 2000년도도 다시 한 번 질문드립니다. 이 CI를 개발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와 지역학교 협의체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로구는 성균관대학교와 상명대학교와 관학협동체제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학협동체제는 실제로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관학협동체제를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성균관대학교나 상명대학교나 특정대학과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 문제점을 더불어서 해결하는 공동 협의체의 제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그 공동협

의체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고 아울러서 이 지역이 안고 있는 각종 문제를 그 대학에 용역을 주어서 해결책을 찾는 것도 또한 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적절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자치단체와 지역학교의 공동협의체를 운영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한해를 맞게 됩니다. 새로운 한해에도 우리 모든 의원님과 집행부의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께 원대하고 미래지향적인 꿈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以煥 安載弘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宣相善議員!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相善議員 존경하는 金以煥議長님! 金正大副議長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0만 종로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옵는 鄭興鎭 區廳長님과 구민의 행정만족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애써 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지역주민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부푼 희망과 새로운 각오로 새천년 새해를 맞이한 지 엇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보내야 하는 아쉬움과 다시 새해를 맞이할 설레임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1세기의 첫째인 경진년 한해는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7천만 한민족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던 분단 반세기만에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과 이산가족의 남북교환방문, 아시아, 유럽 26개국 정상이 참석한 아셈(ASEM)회의 성공적 개최, 14전 15기의 金大中 大統領의 노벨평화상 수상 등 지구촌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한민족의 위상을 한층 드높인 한해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IMF여진으로 인한 서민의 고통, 구조조정에 의한 실직자의 허탈감, 의약분업으로 야기된 의료대란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큰 상처를 준 한해이기도 합니다. 금년 한해에 있었던 어려움과 고통은 모두 세월의 뒤안길로 묻어버리고 화합과 단결된 종

로구민의 힘을 바탕으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를 바라면서 다섯 가지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버스전용차선 관리방법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교통문제 해결에 획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버스전용차선제 시행은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으로 버سی이용률이 제도 시행 전 보다 약 30% 정도의 증가를 가져왔다는 교통전문기관의 분석이 있어 이 제도의 정착이 현재로서는 대도시 교통난 해소방법의 유일한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의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재 본 제도의 운영상태 중 단속실태를 보면 공익근무요원이 2인1조로 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 단속을 하고 있으며 적발 당할 시는 상당한 벌점과 고액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어 단속구간 내에서는 전용차선제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만 단속공무원의 위치가 매번 동일 지점이라서 그 구간만 피해 나가는 암체 운전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전용차선 진입차량만 단속하고 있어 지척에 있는 불법주차 차량은 소관이 아닌 듯 묵과함으로써 전용차선 이용 교통흐름이 방해 받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단속원의 단속지점을 수시로 변경운영하고 또한 단속원에게 전용차선에 불법주차 단속도 병행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전용차선 관리가 제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뒷골목 청소 및 제설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십오륙년 전만 해도 아침에 일어나면 대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자기 집 앞을 쓰는 것이 이웃 간의 예의요 복을 거두어들이는 일로 여겨졌던 우리들의 아름다운 관습이었습니다. 이런 관행이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지만 서울시 각 자치구의 청소지침도 간선도로의 청소는 행정당국이 하고 골목청소는 주민이 하도록 하여 간선도로에는 구역별 구간별 책임환경미화원을 지정하여 청소를 하고 골목길은 주민들이 각자 자기 집

앞을 청소함으로써 청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 청소상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깨끗하다는 것이 우리 주민이나 외국 관광객이나 다같이 공감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골목 청소는 한마디로 엉망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입니다. 아파트 지역이나 일부 고급주택가를 제외하고 일반 주택가 골목길은 쓰레기로 인하여 지저분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다면 골목청소상태가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주민자치의식이나 행정지도력 중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대표적인 예를 다음 몇 가지로 대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내 집 앞 개념이 사라졌는데도 청소행정은 이를 고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골목주차가 늘어나면서 내 집이든 어디든 공간만 있으면 누구나 차를 세우는데 남의 차가 서 있는 곳을 내 집 앞이라고 청소를 하겠습니까? 또한 여기에 대한 판례도 내 집 앞을 인정치 않고 있습니다.

둘째,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생기면서 사오 십평 대지 정도면 칠팔세대가 살고 있는데 이런 다가구 주택에 내 집 앞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집 앞만 있어 집 앞 관리가 책임분산만 있는 상태이며 셋째, 종량제 실시로 규격봉투 아닌 일반봉투를 쓴 비양심자가 있을 경우는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며칠 간씩 방치하여 도둑고양이들의 먹이 사냥감이 되어서 찢어놓은 봉투내의 쓰레기가 온 골목길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이리함에도 청소행정은 골목청소를 내 집 앞 개념으로 주민에게만 맡기는데 청소행정의 발상전환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겠습니까. 종량제 시행으로 인력에 다소 여유가 생겼으므로 환경미화원을 골목구역 책임제로 한 제도를 도입하거나 교통할아버지 제도와 같이 골목할아버지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구역 내의 청소지도단속 쓰레기 치우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또한 제설대책도 이와 대동소이함으로 골목제설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주차장 확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鄭興鎭 區廳長님께서 구청장이 되신 이후 일관되게 돌아오는 종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돌아오게 하려면 돌아올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대매일경제신문에 기재된 삶의 충족 조건을 보면, 우선 주차가 편리하고 학군이 우수하며 교통이 편리하고 공기가 맑은 것 등이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종로는 가까이 산이 있고 학군도 괜찮고 해서 대체적으로 조건이 충족되지만 주차가 불편하다는 것이 가장 걸림돌이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조건을 다 강화하여도 현재까지 인구는 증가하지 않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는 주차시설이 편한 신도시 아파트 지구가 인기가 있는 것만 보아도 가늠이 가능할 것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200억이 넘는 돈이 적립되어 있으므로 주차장 확보를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동별 골목별 차량대수와 그에 따른 주차수요 파악을 하고 적지를 선정하여 협의취득을 하든지 곤란하면 도시계획 절차에 의거 확보해 나가는 적극적인 행정이 수반되어야만 돌아오는 종로가 가능하다고 사료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네번째로 제1별관 건물 소유권 확보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있는 제1별관 건물은 구 소유로 되어 있으나 건물이 서울시와 소유권 분쟁으로 현재까지 미등재되어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건물의 소유권 문제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이며 또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 여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번째 임차장료 예산절감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승합차 9대, 화물차 50대, 행정버스 1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차량임차료를 별도로 1억원 가까이 예산에 편성하고 있는데 구 차량을 풀제로 사안별로 차량을 운영한다면 차량임차료를 별도로 반영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앞으로 차량풀제 운영과 임차료 절감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다섯 가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 여러분! 밝아오는 신사년 새해는 더욱 건강하시고 만사 형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以煥 宣相善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丁炳煥議員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丁炳煥議員 존경하는 金以煥 議長님! 金正大 副議長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9만 종로구민의 진정한 봉사자로서 정치문화의 일번지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종로를 만들기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鄭興鎭 區廳長님과 盧張鐸 副區廳長님! 또한 1,400여 종로구청 직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사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무악동 출신 丁炳煥議員입니다. 뜻깊은 2000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지방공공제를 경상비와 투자비와 관련하여 본다면 지방기본 공공계에 해당하는 행정, 치안, 교육 등에 대한 지출은 경상적인 특성을 지니는 한편 지방공공자본제 즉 도로, 교통, 통신, 전기, 쓰레기 처리비의 지출은 투자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지방경제 성장의 촉진에 있어서 직접적인 효과를 지니는 것은 역시 지방공공 자본형성과 관련된 투자비인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특히 일반행정이나 경상비와는 달리 투자비는 지역의 산업 경제를 개발시킴으로서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가져와 이것이 지방세 수입의 원천을 풍부하게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세수증대 효과를 지니는 이른바 세수 환원적 지출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자치단체의 경제개발과 주민생활수준의 향상은 물론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성장, 촉진시킬 수 있는 전략을 투자비의 증대에서 찾아야 하며 이는 곧 지방공공자본제의 형성과 증대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000년도 당초예산 1,457억 9,600만원을 편성

하였으나 1차 추경시 80억 800만원과 2차 추경시 65억 3,500만원 2000년도 총 예산은 1,603억 3,9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45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것도 투자비가 아닌 경상적 경비가 2회에 걸쳐 26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려운 시기에 추경예산 중 경상적 경비를 편성하여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품목위주의 지출을 지양하고 지출수요에 따라 예산운용을 신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지출의 필요성이 해소되거나 지출효율화 노력을 통해 절감되는 예산을 다음년도로 이월 해당 부서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출을 신축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출통제예산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출통제예산제도는 미국에서 세입예산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출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집행이 신축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재원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특히 연말에 가서 집행 불용액 또한 예산 이월액을 줄이기 위해 4/4분기 이전에 마무리하지 못한 공사발주를 동절기에 무리하게 발주하게 되는 등 남아도는 재원을 불필요한 용도로 한꺼번에 지출하는 폐단을 치유하는데 큰 효과를 가져다주는 지출통제예산제 도입을 주장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 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1976년 1월 31일 국유재산법이 개정되어 1988년 5월 1일 구 자치제 실시이후 서울시로부터 시유재산을 승계받아 종로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1997년 3월 1일자로 시유재산 중 5종 잡종재산의 관리가 자치구로 이관되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로구는 재산수입 확보를 위한 국공유재산의 매각 또는 배분은 공개입찰을 하고 법령에 의거 특정 등에 있는 경우와 국공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 배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무악동 새마을금고에서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 소유 무악동 67-1번지 170.9m² 2층

건물과 청진동 소재 종로 1,2가동 새마을금고에서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는 대지 147.1㎡ 구유재산을 종로구민의 편의와 재산확보를 위해 해당지역 새마을금고에 불하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생활쓰레기 수거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중 집합장소인 서울에서 중심지인 종로쓰레기 배출이 날로 가중되어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상태인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주민들로부터 분리수거를 좀더 철저히 하도록 유도하여 재활용 쓰레기 분리 수거함에도 일부 미화원들이 가정을 방문하여 마대에 담아오는 경우도 있으며 매월 정기적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종량제 시행으로 생활쓰레기를 분리, 배출 및 감량화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고질적인 주민 불편사항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민원처리와 각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로구청은 전국 친절도 1위, 행정서비스 1위 등 여러 분야에서 일번지 종로다운 면모를 보여줌으로써 25시 구청장이라는 애칭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복잡한 민원을 대행 처리하는 민원후견제인 후견인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과 실무 담당직원들은 민원처리를 위해 주무과에서 타과에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매우 비협조적이며 이기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관계로 민원편의를 막고 각종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사고 있는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구정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以煥 丁炳煥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憲九議員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憲九議員 李憲九議員입니다.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그리고 본회의장의 金以煥議長님! 金正大 副議長님!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의 鄭興鎭 區廳長님! 盧張鐸 副區廳長님을 비롯한 각 局長님과 방청석의 각 課長님들! 신문사 관계자님과 방청객 여러분을 모시고 2000년도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종로구에는 북악산과 인왕산 그리고 낙산이 풍수지리상 좌청룡 우백호로 북쪽과 동서로 길게 뻗어 있어 그 옛날 조선시대에 도움으로 정한 이래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68년 김신조 일당이 북에서 침투하는 바람에 특히 인왕산은 안보상의 이유로 군사시설인 철조망을 쳐놓고 민간인 출입을 통제 해오다가 '82년 전두환 정권 때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출입증을 발부 받아 극히 일부 시민만이 통행하던 중 '92년 김영삼 정부 때 완전개방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왕산 스카이웨이 위는 낙석이나 절개지가 있어서 위험해서 그렇다 치고 스카이웨이 아래쪽은 아직도 낡고 훼손된 철조망이 그대로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시대에 와서 남북이 화해와 협력시대로 나가고 또 보안법까지도 폐지하려는 때입니다. 이곳에 군사시설물을 완전히 제거하여 주민의 활동생활무대를 넓혀주시고 또한 스카이웨이 아래쪽에 있는 군막사도 같이 철거하도록 서울시나 행자부를 통하시든 아니면 직접 군부대와 협의하시든 꼭 철거하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자연보호나 다른 이유로 불가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자연에 대해 많은 이해를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요즘 종로관내뿐 아니라 전 서울시가 건물을 신축할 때 특히 주거환경 개선지역이 심합니다만 좁은 골목에 집을 지을 때 대지 경계선에서 후퇴하여 집을 신축하고 준공 후에 그 경계선에 담을 쌓아 통행공간을 막는 사례가 있습니다. 때로는 별로 쓰임새가 없으면서도 우리의 고질적인 소유관념 때문에 담을 쌓는 일이 많습니다. 區廳長님! 이것이 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법개정

을 품신하시든가 해서 고쳐서라도 철거하여 통행 공간을 확보하도록 권장하여 주십시오.

셋째, 신교동 2번지 일대는 6.25이후 소위 하꼬방이 많이 무질서하게 들어서 있던 달동네이었습니다. 지금도 소방도로가 없는 종로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중 한군데입니다. 또 이 지역은 공원 지역과 풍치지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입니다. 이곳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인 소방도로가 도시계획선이 없다고 해서 소방도로를 낼 수 없다고 한다면 이 지역 주민들께는 설득력이 없고 불행한 일입니다. 청장님께서 이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실 용단을 내려 주십시오. 사업비도 약 8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인왕산 수목원을 가는 길목임을 말씀드리고 2년 뒤에는 공원으로 개발이 안되면 공원을 해제하든가 아니면 우리 구에서 매입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지 모릅니다. 지춘수씨 외 32명이 청원서를 구청장님께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도있게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넷째, 경복궁을 중심으로 동편은 문화재 탐방거리라고 하여 잘 다듬은 석재로 바닥을 깔고 참으로 품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편 효자로는 대통령께서 다니시고 외국 사절이 자주 통행하는 곳인데 이 곳은 아직도 시멘트 재료로 만든 장방형의 보도블록으로 되어있고 시설한지 오래되어 보기에 흉합니다. 더구나 자전거 전용 도로로 지정된 이곳의 보도블록이 잘 깔려 있지 않아 덜컹덜컹거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도 동편과 같이 석재로 하시든가 아니면 보도블록을 손질하여 주시고 특히 가로등이 고목 가로수로 인하여 제구실을 못하니 차체에 이조 5백년의 문화재 왕궁이 있었던 곳이니 품위있고 역사가 숨쉬는 가로등을 동편과 서편에 설치하여 외국인이 볼 때 과연 한국의 전통미를 살린 가로등이라고 칭찬 받을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불법광고물과 특히 플래카드의 무질서는 본 의원이 작년에도 지적하여 청장님께서도 시정을 약속하였으나 어찌된 셈인지 고쳐진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시정을 요구합니다.

각 행정 동마다 게시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가로등에는 걸개 시설을 하여 게시대나 걸개시설 이외 지역에는 플래카드를 달지 못하도록 하고 특히 광고물의 색상은 원색을 피하고 간색으로 하여 눈을 보호합니다. 또한 이웃나라 중국이나 선진국 같이 우리 종로구만이라도 야간건물에 조명을 하여 광고 효과도 높이고 밤거리의 조명도 높이도록 하는 연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인왕산 도시 자연공원 내에 지적상 누상동 산1-3번지입니다. 이곳에 집 두 채가 꽤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두 채 중 한 채는 2년 전 말끔히 개축하였고 한 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집을 서울시에서 무허가로 철거한다는 통보가 3년 전에 있었습니다. 시행시기는 2000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본 의원이 그 집들을 철거하여 달라거나 아니면 정식 등기라도 내달라거나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형평에 맞게 뒷집도 개축을 하게 하든가 하여주시고 또한 그곳에 거주하도록 한다면 위험한 하수시설을 개선하여 장마와 호우에 대비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특히 이 가옥들 뒤에는 배드민턴장을 약 500평 이상 조성하고 야간 조명시설까지 하고도 주민의 사용빈도가 적습니다. 이곳의 활용 방법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요즈음 경로당의 노인들의 소일거리를 보면 바둑이나 장기 그리고 화투로 소일하시고 있습니다. 그것도 평지에 있는 노인정에 한해서입니다. 인왕상정 경로당 같은 고지대 노인정은 특히 효자동인 경우 서원석 회장이 매월 8일 노인 잔치를 하시는 날 외에는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통인시장 근처 양지바른 곳이나 북덕방에서 소일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설을 비경제적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분들께 생산적인 소일거리를 주어서 소득도 올리고 소일도 하실 수 있도록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옥인 아파트 1동 옆에 자연하천이 있고 전에는 조그만 풀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토사로 인해 폐쇄된 이곳 위를 복개하여 옥인 아파트의 주차장과 회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인 아파트의 주차난도 말이 아니지만 겨우 진입해도 다음날 출근 때는 양 옆 차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뒤로 후진하여 충돌이 많아 분쟁이 자주 일어나서 이웃끼리의 의도 좋지 않습니다. 이곳을 복개하여 주차장을 꼭 설치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옥인동 불국사 옆을 끼고 버드나무 약수터 가는 진입로에 블록 담이 있습니다. 인왕산 경관을 바라볼 수 없게 마치 교도소 담같이 높이 쌓여 있습니다. 이곳 담장을 철거하고 미끄럼 방지시설을 철저히 한 후 펜스를 설치하여 인왕산 경관이 확 트이도록 하여 주십시오.

열번째, 이번 예산 심의 시에 적출된 일입니다만 구청 각과에는 쓰지 않고 있거나 용량이 적어 안 쓰고 방치하고 있는 컴퓨터가 제법 많습니다. 이것을 업그레이드하여 각동에 기초부터 배우시는 분들에게 활용하심이 어떠하십니까.

마지막 열한 번째, 옥인동 47번지 재개발 문제입니다. 이곳은 인왕산 끝자락에 양지바른 천하명당입니다. 3년 전에 주민들의 합의로 재개발하기로 합의하고 청장님도 첫모임에 참석하시어 격려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렵사리 모든 서류를 갖추고 구청에 서류를 신청하려하니 신청 시기가 지나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려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河徹昇都市管理局長께서 처지를 잘 아시고 적극 노력하시겠다고 하시지만 청장님께서도 깊이 이해하시고 독려 하시어 이곳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이루시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하고 계시는 많은 분께 고마운 정을 보내고 새해 신사년에도 건강하시고 다복하시길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議長 金以煥 李憲九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吳弼根議員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吳弼根議員 혜화동 출신 吳弼根議員입니다. 온 국민이 가슴 벅찬 마음으로 희망과 꿈을 안고 맞이했던 21세기 첫해였던 경진년 한해도 20여 일이면

저물고 희망찬 신사년 새해가 밝아 오겠습니다. 2001년에는 온 국민에게 꿈과 희망이 넘치는 한해가 되길 바라면서 구정질문에 앞서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께 한 말씀드리고 구정질문에 들어갈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가 무척 어렵습니다. 일간지 1면에는 경제불안, 개인기업 파산, 실직자 급증 등 숨이 막힐 정도의 위기의식으로 모든 위기를 정부에 위임하고 정부를 원망하면서 정부에 모든 것을 요구하고 질타하는 듯한 보도들을 보고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면 나 자신 스스로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보람되고 애국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가짐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유가가 천정부지로 폭등하고 있을 때 단 하루만이라도 기름 한 방울 아끼기 위해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아름다운 마음가짐이 나라사랑하는 길일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나 홀로 자가용 운행을 자제하여 에너지를 아껴서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해 다같이 동참합시다.

첫번째로 인사동길 노점상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인사동길을 한국전통의 거리로 만들기 위해 40여 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말씀하게 단장하였습니다. 지금 인사동길에는 외국인과 내국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어 종로의 자랑스러운 거리가 되었음을 가슴 뿌듯하게 느끼고 있던 중 지난해 12월 전 KBS방송국에서 노점상 천국이 되어버린 역사탐방로인 인사동길의 준비한 노점상을 취재 보도한 바 있습니다. 생계형이 아닌 기업형 노점상으로 변해버린 인사동의 노점상 문제를 우리 구 관계자의 인터뷰 기피로 마치 우리 구에서 단속을 하지 않아 노점상이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처럼 은연중 암시하는 부정적인 보도를 접하고 마음이 개운치 않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점상 단속을 위해 2000년도에 2억 3,217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었고 2001년도에는 2억 4,006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구에서 노점상 단속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노점상이 늘어난 것은 관계자의 감독소홀 때문인지를 밝혀주시고 방송국의 인터뷰 요구에 정정당당히 현 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밝히지 못한 사유가 무엇

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학로에도 20여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역사탐방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도 노점상들이 준공후의 노점상권 확보를 위해 자리를 잡고 영업하는 바람에 공사 진행상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주시고 대학로 역사탐방로 길도 인사동과 같은 노점상 문제가 재현될까 두렵습니다.

두번째로 청소 대행업체의 쓰레기 수거 지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십시오. 그 동안 우리 구에서 직영해 오던 쓰레기 수거업무를 해화동의 경우 대행업체인 삼창기업에 대행시킨 바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는 1주일에 2번씩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1주일에 한번, 열흘에 한번씩 수거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여 골목길 집 앞에 쌓아둔 쓰레기에서 악취는 물론이고 야생 고양이들이 먹이를 찾기 위해 비닐봉지를 찢어 흩어 놓은 바람에 더럽고 지저분하기 이를 데 없어 주민들의 민원이 극에 달해 있으며 명륜1가 5번지 일대에서 환경미화원이 밤에 술에 만취된 채 봉투 속에 든 쓰레기를 20여 가구가 사는 빌라 앞에 풀어헤쳐 던져서 주민이 현장을 목격하고 어떻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냐?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원성은 대행업체의 쓰레기 수거 지연 때문임을 모른 채 아름다운 종로건설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시는 구청장님을 욕되게 하고 있으니 감동기관에서 철저히 감독하여 쓰레기 수거에 따른 민원제기가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체납대책을 수립하십시오. '99년도 종로구의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결정액은 474억 2,600만원인데 비해 수납액은 348억 1,600만원에 불과합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126억 1,000만원은 수납하지 못했고 징수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73.41%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지방세 수납비율 88.35%에 비하면 15%나 저조하였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종로구의 지방채 발행액이 50억원으로서 이자가 지급되고 있는 실정인데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지방세 징수율 정도까지만 끌어올려도 지방채 발행금액인 50억원을 변제하고도 남

을 돈입니다. 체납을 최소화하는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우리 종로구의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19만 종로구민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는 희망이 넘치고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以煥 吳弼根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吳錦南議員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吳錦南議員 吳錦南議員입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金正大 副議長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20만 종로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신 鄭興鎭 區廳長님과 盧張鐸 副區廳長님! 局長님! 課長님! 1,300여 종로가족 여러분! 아름다운 종로건설에 오늘도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것을 보면서 종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의 모든 분야에서 으뜸구가 되리라 생각하면서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IMF 경제위기를 벗어나면서 금융가의 신뢰성이 결여되면서 요즘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틈타 제1금융, 제2금융 할 것 없이 각종 금융사고가 빈번한 이때 2000년 11월 30일 현재 우리 종로구의 예치금은 일반회계예치금 342억원, 특별회계예치금 250억원으로 합계 592억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종로살림을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 2001년부터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 1은행 1구좌 5,000만원까지만 예금보장을 받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에 하나 주거래 은행이 금융사고가 발생시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청장님은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종로구는 2001년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 건축 또는 도로공사를 하게 됩니

다. 그래서 “한번 더 생각하라. 돈 오고 칭찬 온다”라는 말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한번 더 생각한 덕분에 생각하지 않았던 목돈을 받게 되었다는 모 구청의 직원들 말합니다. 내년도 개설해야 할 신설도로나 현재 도로공사 중이거나 도로굴착이 예정되어 있는 곳을 각 유관기관과 굴착계획을 사전 조사하여 조율하고 예산절감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과 절세포상금 지급제도 도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는 연초부터 굴착공사를 신청한 유관기관과 공사 시기를 조정하여 한번 굴착으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한전, 통신 등 매설물공사를 일시에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 예로써 사직동 262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지구 도로를 확장하면서 하수관을 매설한지 3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도시가스관을 매설하고 있으며 수도관은 아직 시일도 잡혀있지 않았으며 기타 매설물도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공사일정을 보면 '99년 4월 12일 착공, '99년 12월 31일 준공으로 되어 있으나 연기되어 2000년 12월 31일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 진척은 까마득합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더구나 여름 장마철과 추운 겨울나기 등 두 해가 지나가도 도로 약 400m가 내년에 가야 개통되는 것인지 아니면 언제쯤 개통이 될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직감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직동뿐만이 아니라 대다수 도로확장 및 도로굴착으로 인한 공사가 각 유관기관과 협조가 없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현재 도로가 개통된 곳도 통신주가 옮겨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2001년부터는 연초부터 유관기관과 분기별로 협조하여 이중, 삼중 굴착이 없어야겠으며 예산도 절약하며 공사기간도 단축하고 주민의 불편도 덜어주면서 여기서 절약하는 예산을 직원들에게 보상금으로 주는 것도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절세포상금 지급제도 도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조례 제288호는 징수포상금지급조례로서 세입증대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에게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세수증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같이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는 증세보다는 절세로 주민들의 담세 부담을 감해드리는 것이 바른 행정지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총예산이 경상비가 66%, 투자사업비가 34%로 편성되어 총 1,500여 억원을 상회하는 팽창예산입니다. 이 예산 중 5%만 절감하더라도 75억의 주민 혈세가 절감되어 기타 복지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하므로 예산의 효과적인 절감과 효율적 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편성된 예산을 경상비에 있어서는 수범적으로 절감한 공무원이나 부서에 대하여 또 공사비에 있어서는 새로운 공법 개발이나 설계의 적정성과 열성적인 공사감독 등으로 준공된 사업이나 공사의 품질이 크게 향상되었거나 공사비를 크게 절감한 공무원이나 부서에 절감예산이나 준공사업의 성과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가칭 절세포상금지급조례를 제정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금년 한해에도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 2001년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꿈과 희망이 가득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以煥 吳錦南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질문에 대한 답변준비 관계로 잠시동안 휴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00分 會議中止)

(12時25分 繼續開議)

○議長 金以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鄭興鎭 區廳長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鄭興鎭 區廳長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區廳長 鄭興鎭 존경하옵는 金以煥 議長님, 金正大 副議長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07회

종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예산 심의 및 조례(안) 심사에 불철주야 구민을 대신해서 종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심혈을 기울여 기초단체의 한 축인 집행부를 질타해주시고 그리고 많은 지도를 해주신 말씀을 초석으로 삼아 새롭게 거듭나는 21세기 희망의 종로구로 거듭 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종로구는 여러 의원님들이 집행부를 격려하고 도와주신 덕분에 앞서가는 종로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종로가 되어가고 있음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감히 이 말씀을 여러 의원님들께 드리는 것은 옛날 관선시대의 종로가 아니고 기초 민주주의 역량을 발휘해나가고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 초석이 작은 일에서부터 움트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총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41건의 지역주민들의 관심있는 사항과 주요사업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해주신 의원님들이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고 계시고 또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정말 구민의 질 높은 복지를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것을 잘 알고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아름다운 종로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좀더 성의있는 답변을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金福同議員 재무건설위원장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와 소량 배출 건축폐기물 처리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질문주셨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대행업체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지연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2001년부터는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전담반을 만들어서 신고는 동사무소에서 받고 처리는 구에서 직접 처리하여 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건축폐기물은 배출자가 처리하게 되어 있는 사항을 구에서는 배출자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상 재위탁 금지를 규정한 법규를 위반하게 되어서 구에서 직접 처리하는 사실상 곤란한 부분입니다. 건축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

하여 해소토록 노력하고, 대형생활폐기물이나 소량 배출 건축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배출자를 적극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후 신속히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청소대행업체 및 직영지역에 대한 무단투기 개선방안 등을 질문 주셨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95년부터 2000년 12월 현재 1만 2천여 건에 9억 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 및 적발하고 수시로 홍보전단을 배포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무단투기 심기를 억제코자 노력하는 점이 크게 근절되는 효과는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단속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을 의원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홍보와 무단투기자에 대한 자율 감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해서는 야간 취약시간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무단투기가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각 동의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를 위한 환경미화원을 이삼명 배치하는 방법으로 대안을 제시해주셨습니다. 현재 제한된 수의 환경미화원으로 각 동에 환경미화원을 배치를 해서 무단투기 쓰레기를 수거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을 활용해서 무단투기자를 조사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후 청소기동반을 활용해서 치우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용도변경 후 허가한 염색공장의 숫자와 단속실적, 시설을 제한할 대책 등을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34개의 염색공장이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염색업소는 1일 폐수배출량이 최고 100ℓ 이상인 경우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사전 신고해야 할 사항입니다. 염색공장은 건축법상 용도가 공장이어야 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으로 변경한 후 신고한 업소는 16개소입니다. 수질환경보존법이 개정된

'96년 1월 8일 이전에 신고된 공장 18개소는 건축물 용도는 관계없이 등록된 업소입니다. 올해의 단속실적은 10개소의 시설개선명령과 폐수를 무단방류한 1개소를 적발해서 조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 염색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강력한 단속을 통해서 염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건축법과 수질환경보전법을 엄격히 적용해서 신규 염색업소가 늘어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형건축물 무단용도변경 등 위법 건축물 발생에 따른 안전점검을 철저히 시행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구청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안전관리아말로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고 재산을 중요시 여기는 중요한 사안일 것입니다. 무단용도변경이나 무단구조변경 등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형건축물 48개 동에 대해서는 금년에 안전진단 전문가를 초빙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나타나는 문제점을 시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고 근본적으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공자와 건물주의 안전의식과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의 건을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구는 재정 상태가 열악하여 아직까지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86건에 약 29km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금년 7월 15일 도시계획법을 개정해서 장기간 미집행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2001년 12월 말까지 전면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시설을 해제하고 존치시설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해서 보상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이 안되어 가지고 세금이 부과되었다고 지적하신 종로5,6가 7건 중 4건이 현행 지방세법에 의해서 종합토지세의 100% 비과세되고 있으며 나머지 3건은 12월 초에 감면조치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安載弘 예산특별위원장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번째, 새로운 세기에 대비한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자원봉사자 확보와 조례 제정, 효율적인 운영방안 대책 등을 질문 주셨습니다. 주민 가까이에서 지방행정을 수행해온 동사무소를 21세기 환경변화에 맞춰서 그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주민의 문화복지 편의시설 등으로 꾸며 주민자치활동의 장과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의 공간을 활용한 주민문화복지센터의 시설 개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생활민원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 자치행정과 내 생활민원 지원팀을 신설, 생활민원 중계소 운영, 생활민원 현장봉사대 운영, 일사천리 창구 운영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사천리란 전화번호가 1472인데 그렇게 알기 쉽게 한 것입니다. 주민문화복지센터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수한 자원봉사자 확보를 위해서 종로구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고 성균관대학교, 상명대학교와의 관학협동 체제를 갖춰 대학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계획이고 관내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는 등 실질적인 주민의 자치의 장으로 주민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필요하다면 구의원님 여러분들과 구 간부를 초청강사로 활용해서 구민과 유대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와 신설과 자원봉사조례 제정 의향의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2002년까지 정부 구조조정이 종료되는 관계로 자원봉사와 신설은 어려움이 있으나 현행 자원봉사팀을 보강하여 그 활동을 활성화하겠으며 자원봉사조례 제정 문제는 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포함된 자원

봉사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하다면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북부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신설 방안을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구 서북 지역에 위치한 부암동, 평창동, 구기동은 문화복지시설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나마도 대개 사설시설들이 있습니다마는 중산층 서민층이 이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북부 지역의 열악한 실정을 감안해서 우리 구에서는 평창동 76번지 소재 귀빈수영장의 부지를 매입해서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센터로 활용하고자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에 있어 실제 매매가와 감평가 간의 차이가 너무 커서 매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바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는 대로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구에서는 서북부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체육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온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외교공관 단지도 수차례에 걸쳐 시장개건의했습니다마는 잘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대책 등을 질문 주셨습니다. 고유가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구 연료 공급 행정은 안전하고 경제적인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가스 보급에 있어서 도로협소, 지역암반층, 고지대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관심으로 금년도 목표 3,500세대를 초과한 5,500세대를 공급하여 현재 79%의 보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4,000세대로 공급량을 늘리고 소규모 취약지역의 도시가스 보급에 중점을 두어서 주민들의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고 2003년까지는 95%까지 보급률을 높이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도시가스 보급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사업기금의 용자 지원 확대와 주민불편 해소 및 안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기동 139번지 사유지 활용방안과 그 미화대책을 질문해주셨습니다. 구기동 139번

지 일대 사유지는 '78년 10월 27일 대통령령으로 외교공관 단지로 활용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곳으로 139의 7, 8호 두 필지 3,648㎡는 '88년 10월 17일 이라크공화국에 공관부지로 이미 매각된 상태이며, 139의 11, 12호 두 필지 2,680㎡는 벨기에 공관부지로, 139의 20호 2,468㎡는 러시아 공관부지로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139의 9호 외 네 필지 6,635㎡는 우리 구에서 재활용품 분리작업장과 각종 자재 및 물품보관장소로 사용 중에 있으며 적절한 공간의 복지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각 추진 중인 외국 공관 건물 부지는 매각이 완료되면 이전계획에 의거 처리할 것이며, 잔여 사유지는 각종 적치물의 정리정돈과 수목 식재 등 주변환경이 단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으로 이어지는 청소행정의 저비용 고효율을 위한 혁신 방안을 질문 주셨습니다. 청소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절감해서 금년 대폭적으로 7개 동을 민간위탁하여서 인건비 등 11억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완전히 민간위탁함으로써 저비용 고효율의 청소업무 수행의 효과가 있지만 우리 구의 경우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특수지역이 많아서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가로 청소 또 각종 시위와 행사 등으로 인한 비상사태 또 특정지역 청소 및 대행업체의 서비스 부족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 지역을 민간위탁하는 것은 우리 구로서는 전면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환경미화원 감소에 따른 대행구역 확대가 필요할 경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 %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그렇게 확대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비의 감축 및 환경미화원의 적절한 재배치를 통해서 청소업무의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시대 이후 증가하는 이웃간 민원 및 집단민원의 효과적이고 민주적인 해결을 위한 민원배심원제 도입을 지적해주셨습니다. 민원배심원 제도는 법률가가 아닌 덕망 있는 주민들을

선출하여 각종 민원을 조정 해결하는 제도로 서울에서는 성동구에서 지금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각종 민원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민원심의위원회와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아직 조정과정에 대한 실효성있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주민들이 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기보다는 서울시 감사원 등 상급부서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기본 위원회와 기능 중복, 조정 결과의 수용 방안 등 실효성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민원배심원제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휴자금의 관리대책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구 금고에 예치한 자금은 아시다시피 일반 또 주차장특별회계 합쳐서 592 억원입니다. 예치된 자금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월별 자금 흐름분석과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매일 세입 중 단기지출을 제외한 유휴자금은 장단기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으며 또한 정기예금의 중도해약을 지양하는 등 이자수입 증대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 구 금고에 예치하고 있는 정기예금은 타 시 중은행의 평균 실세금리의 0.2%를 더 받고 있고 보통예금의 금리도 금년 5월 1일부터 1%에서 2%로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휴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세입세출 결산 등 지방재정통합관리 전산프로그램을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참고로 하고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단체와 지역, 학교 협의체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의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균관대학교 그리고 국제산업디자인대학, 상명대학교와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대학의 풍부한 학문과 이론과 참신성을 구정에 반영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정보를 교류하는 등 대학의 소위 브레인 뱅크(brain bank)라고 불리는 두뇌집단 분야별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금년에 대학의 자문을 받아 구청 통근버스 디자인, 종로 만세의

날 밭그림, 효자동 통학로 벽화 그리기, 직원영어 강좌 강사 지원, 외국자매도시 공무원 기숙사 제공, 구민을 위한 교양강좌 개최, 아르바이트 대학생 취업, 대학축제 행사 참여 등 다양한 교류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우수한 대학과 전문교육기관이 소재하고 있어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대로 이런 더 여러 분야의 충분한 교류가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공사 백서 발간을 통한 건설행정의 투명성 등을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지적하신 건설공사 백서의 발간을 통한 건설행정의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공사 발주에서 준공까지 예산집행 현황 및 주요 설계변경 현황을 공개하는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 시스템을 운영해서 인터넷의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가 접속하여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발간하는 구정백서에 우리 구에서 시행한 건설사업 전반에 대하여 주민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라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많은 건설공사에 대해서 할애를 해서 백서에 넣든가 필요하다면 별도의 백서를 발간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로구의 지역통합 이미지 제고를 위한 C.I를 개발 활용, community identity를 말씀하셨는데 지난해에도 같은 질문을 해주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지난 1년 동안 우리 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상징물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인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92년에 선정되어서 사용해오던 이미지를 바꾸는 일은 신중을 기해야 하지만 많은 주민들께서 원하는 만큼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아 우리 구 이미지를 상징하고 희망을 주는 community identity를 개발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구의회와 지역주민, 각종 단체 전문가 등으로부터 폭넓고 깊이있는 의견을 받들어서 새로운 이미지 개발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버스전용차선 관리 방법을 말씀하시고 그 외에 여러 질문을 해주신 宣相善議員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도로교통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서울시와 경찰청 주관으로 버스전용차로제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단속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는 5개 노선 18.6 km의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되고 있으며 14개 지점에서 정규단속원 32명과 공익요원 32명이 2인 1조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단속위치의 수시변경과 주차단속 및 전용차로 단속의 동시 수행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속위치 수시변경은 현재 일부 실시하고 있는 사안이나 의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 내년부터는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차단속과의 병행문제는 단속업무를 성격상 동시 수행이 사실상 곤란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단속조를 편성, 주차단속을 강화해서 전용차로제의 운영 효과를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뒷골목 청소 및 제설대책의 책임제를 도입할 의향 등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별로 담당지역이 확정되어 있고 청소작업의 뒷마무리를 철저히 하도록 벌써 1년 전부터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특별청소를 실시하여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으며 동절기 이면도로 또한 지역실정에 맞게 취약지점별로 염화칼슘을 적재하는 등 제설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네 뒷골목 내 집 앞은 주민 스스로 청소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돌아다녀보면 각 구가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웁시다' 했는데 저희는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과 쓰레기는 내가 치웁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365일 쓰레기거나 눈이거나 내 집 앞과 내 점포 앞은 내가 스스로 쓸 수 있는 이런 시민정신을 계도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저희는 내 집 앞 쓸기 운동과 제설대책의 추진에 참여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직능단체와 연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골목 할아버지 제도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적극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확보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99년도에 주차장 정비 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96년부터 총 15개 지역에 약 2,500평의 부지를 매입해서 350면을 공급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적정한 부지를 가능한 추가 매입해서 공영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좋은 대안도 제시해주셨지만 현시가와 감정가의 차이 때문에 250억원이 있는 주차장특별회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그동안 의원님들이 동네마다 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도와주셔서 이나마도 공영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계속해서 많이 이걸 발굴해 주셔가지고 우리 종로구가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서 돌아오는 종로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제1별관 건물 소유권 확보 대책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제1별관은 '99년 10월에 1,594평 규모로 서울시 교통센터로 건립되어서 서울시와 우리 구가 공동으로 사용해왔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시유재산 조정지침으로 '87년 6월 10일에 이 지침에 의거해서 제1별관을 3, 4, 5층을 서울시 소유로 구분 등재해줄 것을 요구했었으나 제1별관 청사는 건립 이후 우리 구에서 계속 관리해왔고 현재는 전체를 우리 구에서 사용하므로 소유권을 등재하는 것은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서울시장께 건의 말씀드려서 우리에게 사무실을 많이, 그 전체를 저희에게 양도했었던 것인데 이 청사 문제는 우리 구청의 물론 구의회에 포함되는 신청사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서울시장께서 소방본부 이전 후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도 그때 동시에 해결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사료돼서 이 정도로 보고 말씀드릴 겁니다. 다음으로 차량임차 문제 예산절감 문제를 질문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저희 종로가족이라고 불리는 1,400여 공무원에 대해서 항상 격려해주시고 특히 추석이나 명절에 귀성열차를 허가해주셔서 저희 직원들이 종로에 근무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는 많은 그러한 감사함의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에 구입한 JR이라고 써있는 대형버스와 내년도에 구입하는 중형 버스를 각종 행사시에 최대한 활용해서 임차료 절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丁炳煥議員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추경예산 중 경상적 경비를 편성해야 하는 이유 등을 세세하게 질문 주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하면 본예산 성립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운영토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경상비 지출을 위해 불필요한 것을 추가하고 있다는 사항은 의원님이 진정으로 우리 구 살림을 알뜰살뜰 보살피고 계신 것으로 사료돼서 참으로 고마운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경상비에 배분한 것은 노인교통비 인상분 보전 그리고 소송배상금 부족분 반영 등 변동된 법정 필수경비의 최소화하고 있으며 투자사업에 많은 재원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출통제 예산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좋은 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 현행 저희 구 예산구조는 품목별 예산이라고 불리는 수십 개의 품목규정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하에 이월되는 예산집행에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절감예산을 보유하고 사용한 것을 분야별로 허용하는 제도인 지출통제예산제도의 도입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제도를 자치구에서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복식부기를 시범 실시하는 등 예산제도 문제점을 계속 개선해가는 중이고 의원님께서 제시한 사항도 기이 검토한 사항으로 법 개정시에는 우리 구에서 우선적으로 채택해서 좋은 지적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소유 무악동 새마을금고와 구유재산 종로1·2가동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불하할 용의는 말씀 주셨습니다. 시유 잡종재산인 구 무악동 파출소는 약 51.8평으로 '99년 7월 1일에서 2002년 6월 3년 기한으로 무악동 새마을금고에 대부하여 사용하고 있고 구유 잡종재산인 종로1·2가동 새마을금고는 대지가 약 30평인데 건물은 약 7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7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종로1·2가동 새마을금고에 대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재산의 매각계획은 없습니다. 매각할 경우에는 이것이 수의계약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활용품을 분리하여 수거하는데 분리가 안되는 데 따른 근본대책과 환경미화원의 금품수수행위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방안을 질문 주셨습니다.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홍보로 많이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주민들에 의한 혼합배출로 인해서 환경미화원이 쓰레기 상차시 재활용품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등 애로가 많은 경우로써 주민들의 철저한 분리배출이 요구될 것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활성화하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전 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금품수수행위 근절을 위한 환경미화원 실명제와 주1회 이상 순회교육 및 현장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이게 알려진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역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상당히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수의 민원인들이 강제로 금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보

고 감사실에서 쫓아가았는데 그 안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듣기로도 금품을 요구하는 환경미화원이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사해본 결과는 상당수는 참 3D현상 중의 하나인 더러운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서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듣고 있었으나 종량제봉투 시행 이후 금품수수행위가 많이 현격히 줄어들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버릇이 환경미화원이 행패를 부리거나 또 이러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인사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복합민원에 대해 과별 협조가 잘 안되어 지연 처리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저도 간부회의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 점을 지적하고 왜 이것을 할애하지 못하는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에서는 부처 이기주의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실·과·국별 간에 잘 팀워크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사처리라든가 또 윈스톱민원처리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를 강구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완벽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이렇게 제가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점에 대해서도 저희는 꾸준히 노력해서 이것이 종합적으로 또는 각 부서가 통합적으로 이렇게 한번에 이루어지는 그런 민원처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좀 말씀을 더 드리자면 민원은 법률에 의거해서 처리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민원인들을 조사를 해보면 상당수의 민원인들이 만족해하고 있는 여론을 보고 있습니다. 법률검토도 상급 부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하면서 요하는 그러한 것은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업무 폭주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시간 지연되고 있는 것은 중간 회의를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을 소개하도록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처리시간 준수 여부를 수시점검해서 지연처리 직원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하고 민원대책회의 관련 과장회의 등을 더욱 활성화시켜

서 원활한 협조로 적극적인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李憲九議員님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왕산 주변 특히 스카이웨이 아래 군사시설물 철거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각별하신 관심으로 말미암아서 인왕산에 저희가 공공근로자를 통한 수목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산로를 개척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고 많은 칭찬을 받게 된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그동안에 새 정부가 들어서서 군사시설물에 대해서 많이 할애하고 해서 저희가 철조망 등 시설물을 많이 없애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러한 경관을 훼손하고 덜 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정리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기쁜 소식은 오늘 경비단장이 사령관 표창을 가지고 저한테 감사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제가 지난번에 전국 단체장 회의에서 청와대 방문시에 제가 영광스럽게 종로기 때문에 일번 테이블인데 경호실장이 바로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건의를 했습니다. 스카이웨이에 좀 청와대에서 할애해서 우리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산책도 하고 조깅도 하고 자전거도 탈 수 있는 그러한 보도를 확보해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남산 이상으로 좋은 도시인데 이렇게 해야만 그동안에 역대 대통령이 우리 청와대 부근 주민에게 한 가지 해준 것이 없다. 원성만 드높을 뿐이다. 우리 대통령께서 이 점을 하신다면 참으로 칭송받을 것이다 했는데 이것도 마이동풍으로 흘러갈 줄 알았는데 이 경비단장이 와서 그 말씀을 드렸다고 먼저 말씀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은 지금 확정 안됐지만 내년까지 서울시에서 30억을 책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철조망 철책을 산뜻하게 정비해서 또 제가 주장하던 바를 반대편에 이렇게 해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참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조상대대로 물려온 경관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고 많은 시민들이 우리 종로

를 부러워하는 그러한 일이 되겠기에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이 스카이웨이 철책이 산뜻하게 될 것이라고 내년에는 꼭 될 것이라고 사료돼서 기쁜 소식을 먼저 올립니다. 다음으로 신축건물 건축 후 토지 경계선에 담벽 설치 제거에 대한 건을 말씀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건물 신축할 때 건축법상 도로폭이 미달되면 건축선을 후퇴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거환경개선지구는 특례규정에 따라서 건축선을 후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후퇴선이 아닌 대지경계선에는 건축주가 임의로 담장을 임의로 축조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고 건축선을 침범하거나 건축후퇴선에 설치된 담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시정시키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그렇게 통신이라고 말씀해 주신 법의 개정에 대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교동 2번지 일대 소방도로 개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 의원님이신 정창희의원께서 우리 종로에 소방도로 개설하려면 4천억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의원님들 덕분에 깨나 많은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확충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시다시피 장기 미집행 시설이 종로가 가장 많기 때문에 많은 곳이 이러한 불편하고 화재가 날 때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교동 2번지 일대 소방도로 개설문제는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인왕산과 접한 공원용지로 되어 있고 풍치지구로서 공원조성 및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결될 문제가 이것을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고 또 현재 사업계획 및 사업비 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도시계획 시설문제는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결과를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복궁 서편 보도블록 교체와 가로등 교체문제를 말씀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청와대에 두 번이나 상소같은 것을 올린 바 있습니다. 청와대만 아름다워서 되겠는가, 주

변에 동민들의 주거환경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법과 제약으로 증축이나 신축을 할 수 없게끔 거의 되어 있고 또 스카이라인과 여러 가지 용적률같은 것이 불합리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사진과 함께 올렸던 바 있어서 이것이 효과를 봤는지 몰라도 종로에도 여러 군데가 풍치지구가 해결되어 있습니다마는 완벽하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관련국장이나 과장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심사를 해가지고 완화도 특별히 해제토록 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음을 보고말씀을 드리고 4대문 안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경복궁 동측의 보도와 가로등 개량은 정비 완료되었는데 2단계 사업으로 2001년도에는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경복궁 후측 효자로쪽이요. 보도정비와 가로등 개량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되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공사 규모를 말씀드리면 폭 4.5m이고 연장 1,700m입니다. 소요예산은 26억으로 확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사기간 중 효자로 보도정비, 경복궁 소위 서측 맞은편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불법광고 및 플래카드 정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식은땀이 날 정도로 질책을 해주셨는데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별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종로에 대해서 노점상이나 또 그런 광고물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정부와 서울시 견해는 사뭇 다릅니다. 정부에서는 생계형 노점상은 좀 봐줘야 한다. 소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신규를 무조건 억제를 합니다. 저희 구와 같은 의견으로 있습니다. 정부의 뜻도 잘 아시겠지만 참으로 경제가 어려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우리 종로거리가 매스컴에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노점상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매번 토론을 격론을 겪고 있습니다. 저

회가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들은 턱없이 줄어 들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단속반원은 말할 나위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단속반원들이 주로 활동할 시간은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특별근무수당을 줘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그렇게 책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종로는 서울의 얼굴이기 때문에 즉 서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특별예산을 배정해줘야만 우리가 단속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했어도 아직 들어주지 않습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해주신 광고나 플래카드 문제도 저희가 정부와 더불어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불법광고물과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만도 수치로 보면 7,600점 그리고 불법적치물 50여 만점을 단속하고 불법간판 약 2,000건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했고 일부 광고주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도 한 바 있습니다. 단속과 병행해서 인사동과 돈화문로를 시범가로 지정해서 자율적으로 광고물을 개선하고 업소에 대해서는 200만원을 무이자로 융자해주는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선 플래카드 게시대를 설치해서 질서있게 게시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광고물관리법이 강화되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어 단속에 보다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이렇게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왕산 도시자연공원 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왕산 자락 누상동 무허가건물 2동은 '70년대에 지어진 낡은 건물로 한 동은 낡은 상태로 있고 한 동은 '99년에 수리 중 완파되어 가지고 재건축되었습니다. 공원용지에 무허가건물은 현행법상 제도적으로 재건축이 불가해서 변상금 부과 고발조치 했는데 건물보상 후 공원조성을 위하여 서울시에 보상금 및 공원조성비를 2001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배드민턴장이 지금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라이트

까지 되어 있는데 활용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주민과 함께 같이 상의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로당 노인 소일거리 개발 등 좀 자상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구에서 노인 소일거리 확보 및 노후생계에 도움을 주고자 공동작업장을 부암경로당에 1개소가 운영중에 있는데 아시다시피 요즘 경기가 어려워져서 그런 공장들도 적어지고 일을 맡기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각 동별로 노인봉사대 즉 교통이나 골목, 공원할아버지를 조성해서 사회봉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거기에 예산을 이미 통과시켜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64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에서는 노인고용알선센터를 설립해서 노인고용 촉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고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 관내 기업체와 연계해서 노후를 보람되게 마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인 취업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설립되면 노인취업 확대를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해서 노인들이 건강하고 알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옥인아파트 1동 사이의 하천부지 복개 문제 그래서 주차장화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러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옥인동 179-7번지 주차장 건설에 대한 사항은 기 검토된 것입니다.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 토지가 지목이 공원용지로 되어 있고 용도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이고 군사보호시설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걸려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환경보호단체나 서울시에서는 하천복개를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요즘 오히려 복개를 뜯어내고 있는 실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종로는 정말 골목길이 어려워서 이런 제안을 하신 모양인데 이 점은 좀 시간을 두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옥인동 불국사 옆 수목원 진입로에 블록담장 철거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여러 보안시설물이나 군사시설물 때

문에 주민들이 참으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블록담장도 보안관계상 설치한 시설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존치되고 있는 담장은 위험성은 없지만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가능한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청 각 부서에 방치되어 있는 중고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해서 컴퓨터 교육에 활용할 방안은 없는가 질문 주셨습니다. 급변하는 정보화 업무처리와 최상의 고객만족을 위한 신속정확한 서비스 제공에는 고성능의 컴퓨터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구는 2002년까지 1인 1 컴퓨터 갖기를 목표로 하고 매년 컴퓨터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또 사용 낮은 구형 컴퓨터는 중앙처리장치 하드메모리 기능을 향상시키는 업그레이드를 실시하고 사용하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전자결재시스템 시행과 관련해서 270대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하고 사용하고 있으나 아직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각 부서에 불용 컴퓨터는 대다수 486이하급 제품으로 업그레이드시 소요된 예산이 정부조달구매가보다도 더 들거나 기능이 한계점에 도달된 컴퓨터가 대다수입니다. 앞으로 사용 가능한 컴퓨터는 기능을 향상시켜 활용하도록 하고 지적하신 대로 그렇지 못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컴퓨터를 배울 수 있는 데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옥인동 47번지 일대 재개발문제를 질문 주셨습니다. 옥인동의 재개발이 조속히 추진되었으면 하는 것이 의원님과 저희들의 바람이고 앞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옥인동 47번지 일대는 재개발을 추진하기에 필요한 법적인 요건이 맞지 않아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매 5년마다 서울에서 수립하는 서울시 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이어야 하는데 옥인동47번지 일대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에 서울시에 재개발기본계획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2003년기본계획 재수립시에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해준 바 있습니다. 현재로서

는 이처럼 법적인 제약이 있어서 주민들이 구역지정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서 다시 신청을 하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吳弼根議員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신 중에 특히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세세한 대안을 제시해주셨습니다.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한사람이 버섯이 타고 다니는 자가용에 대해서 통분을 금치 못한다는 말씀도 해주시고 또 에너지 절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역설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우리 구청에서 여러 가지 절수라든가 절전 문제를 가지고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완벽하게 되고 있지 않아서 반성해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역사탐방로의 노점상 단속대책을 말씀 주셨습니다. 앞으로 예견하는 문제도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인사동 역사탐방로 문제에 대해서도 완전히 저희는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거기를 관리할 수 없다 인건비를 주지 않으면 안한다 그래서 저희가 2억을 요청했는데 다행히 1억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범위 내에서 노점상도 단속하고 또 청소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최선의 관리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단속인력이 40명에서 18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예를 들면 포장마차 하나 뺏어오는데 20명쯤은 필요합니다. 그 가족이나 쇠괴이프로 휘두르는 사람들 때문에 그것 하나 가져오는데도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인원이 대폭 줄어 가지고 단속하기가 실제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도 시장께 말씀을 드렸는데 인사동에 대해서는 1억을 배정 받았는데 앞으로 좀더 노력해서 시로부터 예산배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실무자로서 걱정하는 것은 TV드라마에서 거의가 남녀주인공이 포장마차에서 정감어린 대화를 나누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서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속을 나가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오히려 그 포장마차나 노점상이 당연한 것으

로 알고 그들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이것을 제도활동을 벌이지 않으면 참으로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실감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초지일관 신규를 억제하고 또 여러 가지 노점상으로 보행을 방해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열성적으로 단속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청소대행업체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청소를 해야 하는데 열흘이나 2주에 한번씩 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행업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서울시내의 몇 군데의 구청에서 완전히 대행업체에게, 근데 그 구청은 지금 상당히 난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환경미화원을 전부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법률상 그들이 정년이 되거나 신병상 아프거나 했을 때 그만두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그 사람들 그대로 둔 채 일반에게 용역을 준 지금 이중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추리해서 아까 보고 말씀 올린 것처럼 환경미화원이 줄어드는 감소추세에 따라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다른 업체와 경쟁을 시켜서 하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주신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것도 좋은 의견이시고 우리는 앞으로 그걸 준비해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음식물분리수거라든가 청소작업환경 등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에게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적환장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미화원의 금품수수라든가 용역업체의 불성실한 행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점도 의원님과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끝없는 숙제이기 때문에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 올리자면 과거에는 총무, 감사, 기획분야가 선호하고 훌륭하다고 느끼는 간부들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각 구청에서 청소행정과장이

가장 엘리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시대적 변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는 우수한 우리 직원들과 더불어서 열심히 해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결정액에 비해서 수납액이 저조한 사유와 향후 체납대책을 말씀주셨습니다. 참으로 체납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도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많은 업체가 갑자기 나타나서 시작했다가 갑자기 사라지곤 해서 세원 추적도 어렵고 또 고질적인 고액체납자도 있고 해서 타구보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우리 세무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밤 12시까지 불을 켜놓고 일을 한 덕분에 우리 구가 서울시 25개 구에서 최우수구로 사실상 뽑혔는데 접근성 문제 우리가 세무민원실을 수리 중에 있었으므로 4층에 세무민원실이 옮겨갔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4층까지 접근하기 어렵다고 해서 거기서 점수가 깎여 가지고 우수구로 되어서 2억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사실은 구민들 입장에서 보면 세금을 제일 많이 거두었다고 하면 구청장을 그렇게 좋게 생각 안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대다수를 위해서 우리는 체납세를 비롯해서 세금징수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는 이런 체납액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와 함께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사료되어서 지적해 주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연구노력해서 체납액을 줄이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로공사시 유관기관과 협조 후 공사를 시행해서 예산 절감할 의향은 없는가 이것도 吳鎭南議員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저희가 도로개설 공사시 유관기관과는 이미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활히 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는 문제가 있지만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굴착기관이 명시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많이 지적해주신 바인데 저희는 아직도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

습니다. 그래서 공동구가 설치되어야만 원활히 할 수 있는데 금방 도로포장을 해놓고 몇 달도 안되어서 도로굴착을 해야하는 이런 예산낭비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이 이것은 저와 같지만 어쩌면 자가당착일지도 모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낭비라고 우리가 지적하곤 하지만 우리 동네에서 도시가스를 시설해 달라고 하면 이 추운 겨울에 말하자면 생계하고 연결되는 민생에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법에 어긋나니까 3년 뒤에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이 첫째이기 때문에 다소 불합리하고 또 예산낭비라 할지라도 때때로 전부는 아니지만 저희가 굴착허가를 내주고 그래서 도시가스 관을 매설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금방 굴착을 했는데 또 하느냐 이렇게 질책을 하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당분간은 이런 민생문제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고 주민들에게 많이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저희도 선진국처럼 공동구를 설치해서 언제든지 고장나면 고칠 수도 있고 또 신설할 수도 있는 그런 시설로 되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吳錦南**議員님 질문이셨습니다. 그렇게 답변 올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희자금의 안전관리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자상하게 걱정도 해주셨습니다. 먼저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한빛은행과 2000년 5월 1일부터 2005년 12월까지 구금고 업무취급약정을 체결해서 금고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금고가 불안정한 상황에 처할 경우에 대비해서 한빛은행을 금고로 지정한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와 공동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빛은행은 정부가 자본금의 75%를 출자하는 금융지주회사로 출범할 계획으로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보고 말씀 드리고요. 우리 구가 구금고에 예치한 자금은 아까 보고 말씀 드린 것처럼 총 592억입니다.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예금자 보호법의 규정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금자보장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으로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영업정지, 파산정지 등으로 사실상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연쇄 파산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는 최근 언론보도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말씀 올린 것처럼 안전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절세포상금 지급제도, 인센티브제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예산을 절감한 공무원이나 부서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포상하는 제도는 우리 구에서도 예산절약 성과급 운영규칙을 현재 제정 중에 있고 내년 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 심의시에 기이 검토하신 바와 같이 예산절약 성과급으로 편성된 5,000만원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절세포상금의 성격과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산절약 성과급이란 제도 개선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서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를 가져오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포상하는 제도로서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이 제도를 정착시켜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절감을 생활화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구정을 실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지 못하지만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내일도 계속적으로 존경하옵는 의원님들의 질문이 계속될 것으로 사료되고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더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서면답변으로 올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以煥 鄭興鎮 區廳長님! 장시간 동안 이렇게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10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여기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지 못하신 나머지 의원님들

께서는 내일 12월 13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13일
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散會를 선포합니다.

(13時38分 散會)

○出席議員 19人

金以煥	金正大	宣相善	鄭泰淳
李憲九	千相旭	丁炳煥	李炯述
金福同	崔康洵	玄壽漢	洪起瑞
洪承台	安載弘	李東奎	吳錦南
吳弼根	朴鍾植	劉燦鍾	

○出席關係公務員

區廳長	鄭興鎭
副區廳長	盧張鐸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財務局長	董連浩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都市管理局長	河撤昇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保健所長	李星世

